



## “밖에서 밥 먹기 겁나네”...외식 품목 ‘줄인상’ 서민 시름

광주지역 김밥 전년비 9% ↑ ...8개 품목 중 7개 올라  
치킨·햄버거·피자·김밥 프랜차이즈 업체도 인상 예고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가격이 오른 치킨·김밥에 이어, 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5월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뜩이나 고물가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주지역 냉면, 비빔밥 등 주요 외식 품목 8개 중 7개의 가격이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보다 올랐다.

김밥 한 줄이 3천60원에서 3천340원으로 9.1% 상승하며 가장 큰 가격 인상 폭을 기록했다. 이어 자장면 7.9% (6천300원→6천800원), 비빔밥 6.4% (9천300원

→9천900원), 삼계탕 3.7% (1만5천800원→1만6천400원), 냉면 3.2% (9천300원→9천600원), 삼겹살 200g 2.9% (1만4천844원→1만5천289원), 칼국수 2.5% (8천원→8천200원)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김치찌개 (8천원)만 유일하게 가격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역시 자장면, 칼국수, 냉면 등 6개 품목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자장면은 4.2% (6천611원→6천889원) 올랐으며 칼국수 4% (8천333원→8천667원), 냉면 3.9% (8천444원→8천778원), 비빔밥 3.2% (8천444원→8천722원)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삼계탕 (1만5천889원→1만6천원, 0.63%), 삼겹살 (1만7천694원→1만7천806원, 0.63%) 도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김밥 (2천566원)·김치찌개 (7천722원)는 1년 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다.

여기에도 김밥, 치킨, 커피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 인상이 잇따라 단행되며 지갑 사정이 여의지 않은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이달 9일 메뉴 가격을 100~500원 인상, 대표 메뉴 바르다김밥 가격은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

굽네치킨은 지난 15일 9개 메뉴 가격을 1천900원씩 올렸다. 이에 대표 메뉴인 굽네 오리지널과 굽네 고추바사삭 가격이 1만6천원, 1만8천원에서 1만7천900원, 1만9천900원으로 각각 11.8%, 10.5% 상승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더벤티는 지난 22일부터 카페라떼 등 음료 7종 가격을 200~500원씩 올렸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가장 구매 빈도가 높은 아메리카노 가격은 동결했다.

당장 5월 가격 인상을 예고한 프랜차이즈 업체도 다수다.

맥도날드는 5월2일부터 16개 메뉴의 가격을 인상한다.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불고기 버거는 300원,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등도 100원씩 인상된다.

피자헛도 같은 날 프리미엄 메뉴인 갈릭버터쉬림프, 치즈킹 등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의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0년 3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앞지른 이후 지난달까지 48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기준 떡볶이 1.38%, 탕수육 11.7%, 김밥 8.6% 순으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김현지기자



봄꽃 즐기는 상춘객 광주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28일 화순군 도곡면 고인돌 유적지에서 열린 봄꽃 축제장을 찾은 이들이객들이 향기로운 꽃길을 걷고 있다. /김애리기자

## 무안-제주 정기선 4년만에 다시 뜬다

제주항공, 주 4회 운항...무안공항 활성화 신호탄 기대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의 제주 노선이 4년 만에 재취항해 공항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제주 정기노선은 제주항공 누리집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좌석에 예약 없이 예약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정기노선 유치에 위해 항공사 재정손실금을 운항 장려금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장려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목표로 항공사와 업무협약, 4월엔 서남권 6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전남도와 인근 시·군, 항공사가 협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재취항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재취항 첫 날인 지난 28일 무안국제공항에선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산 무안군수,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제주항공 무안·광주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제주 노선 이용 장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이용객에게 탑승권·기념품도 함께 전달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 노선 정기선을 시작으로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발돋움하길 기원한다”며 “향후 운항 횟수와 다양한 노선을 늘릴 계획인 만큼 전남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무안-제주 노선 재취항으로 전남 도민들이 편리하게 제주도를 왕래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 정기노선 재취항을 결정한 제주항공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주 4회 운항하는 무안-제주 노선 외에도 중국 장가계(주 4회), 연길(주 2회) 노선을 10월까지 운항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 尹대통령-李대표, 오늘 첫 ‘영수 회담’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정해진 의제 없이 차 마시며 대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수 회담’을 갖는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야당 대표와 영수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여

야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전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담을 가진 뒤 이날 같은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회담은 오전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다.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홍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의제협의여부와관계없이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비서실장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담이 나면 오전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며 “오전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하지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기자

**Today**

의대비대면 개강...수업 참여? 6면  
광주제조업 대부분 “투자 축소” 12면  
나성범 복귀...짜릿한 재역전승 16면

###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남양정보기술(주) ☎ 광고문의 062) 231-1355**